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 7. 23(월) 오전 11시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방송통신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 참석자 소개 사회자(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쟁의실 윤종욱 차장)
- ✓ 공동대표 발언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 공영방송 현장 발언 이경호(언론노조 KBS본부장), 김연국(언론노조 MBC본부장)
- ✓ 검증 결과 발표 오정훈(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 질의 응답
- ✓ 폐회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검증 결과 및 의견서

2018. 7. 20.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 중인 K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과 관련,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의 검증 결과 및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방송독립시민행동의 검증 활동 취지

-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부당한 개입에 따라 구성돼, 자질 미달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음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배제한 가운데 시민 참여, 공개 검증을 통해 독립성,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해왔음
-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후보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역시 폐쇄적인 방식을 채택해 폭넓은 시민 참여, 공개 검증은 어려워졌음
- 따라서 방송독립시민행동에 참여하는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후보자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열린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의견, 부적격 전력 제보를 받아 직접 검증에 나서기로 함
- 검증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해외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선임 기준을 참고해 학계와 시민사회가 수년 간 토론해 수립한 기준에 의거 진행함

2. 검증 방법

- 검증 기간 : 2018년 7월 16일(월)~7월 20일(금)
- 시민 제보 : 2018년 7월 16일(월)~7월 19일(목), 온라인 제보센터(<http://www.b-act.kr>)와 방송독립시민행동 상황실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함
- 정보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인증 후 확인하도록 한 후보자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온라인 제보센터에 공개함

- 검증팀 구성 : 방송독립시민행동 참여 시민단체 및 학계, 현업언론단체 관계자들로 구성
- 검증 방식
 - 언론계 또는 해당 방송사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재직 시 주요 경력과 활동에 대해 검증
 - 공영방송 이사를 역임했거나 방송계 경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직무 기간 활동 성과와 자질에 대해 검증
 -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도와 공적 책무 이행 의지 중심으로 검증
 - 분야별 기본 검증 결과 토대로 교차 검증, 종합 토론 통해 최종 결과 확정함

3. 검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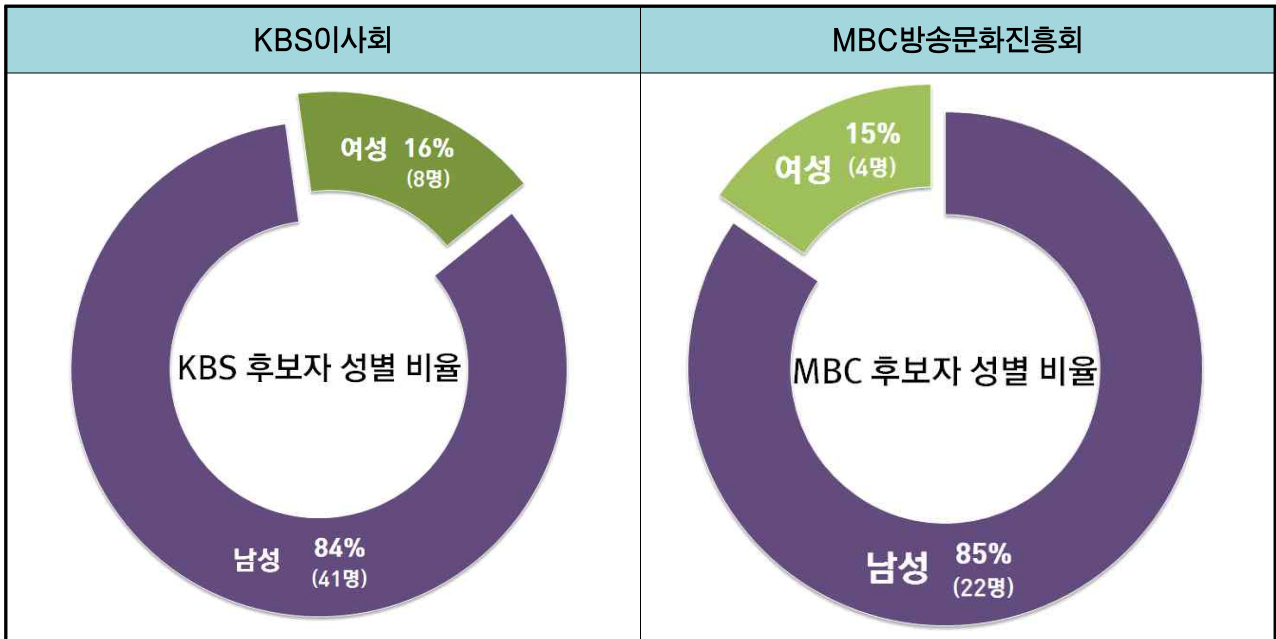
‘2018 방송독립시민행동 제시 ‘공영방송 이사 자격 조건과 검증 기준’	
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철학	방송의 독립성
②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공영성
③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으로서 공영방송 조직과 경영의 투명성, 자율성, 개방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이사 업무역량 / 민주주의 철학
④ 미디어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변화, 매체산업구조 및 문화 변동에 대한 이해	업무전문성
⑤ 공공 부문 업무 경력 및 이해도	공적업무 경력과 이해
⑥ 경영진에 대해 시청자의 알권리, 여론, 불만소원을 대변하는 책무 및 상시적 감시(monitoring)를 수행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	시청자/국민대변
⑦ 방송법에 규정된 공영방송의 책무인 여론다양성 및 지역대표성	방송법/ 여론다양성
⑧ 소수자, 성적 정체성 등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경력	다원적 가치
⑨ 성/평등한 가치 실현 및 조직문화 개선 실천경력과 의지	성평등
⑩ 방송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 보장, 공정성 보장 장치로서의 노사관계 이해	노동존중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015년 언론 학계, 언론·시민단체가 해외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선임 기준을 참고해 수립한 안을 토대로 여러 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위의 자격 조건과 검증 기준을 마련했음
- 위 검증 기준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팀의 취재, 조사와 시민 제보 내용,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검증 작업 진행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이사 선임의 기준과 원칙을 공표하지 않고 있음.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학계와 시민사회, 현업언론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한 논의를 통해 수립한 자격 조건과 검증 기준을 수용해 후보자 검증, 선임 시 전면 적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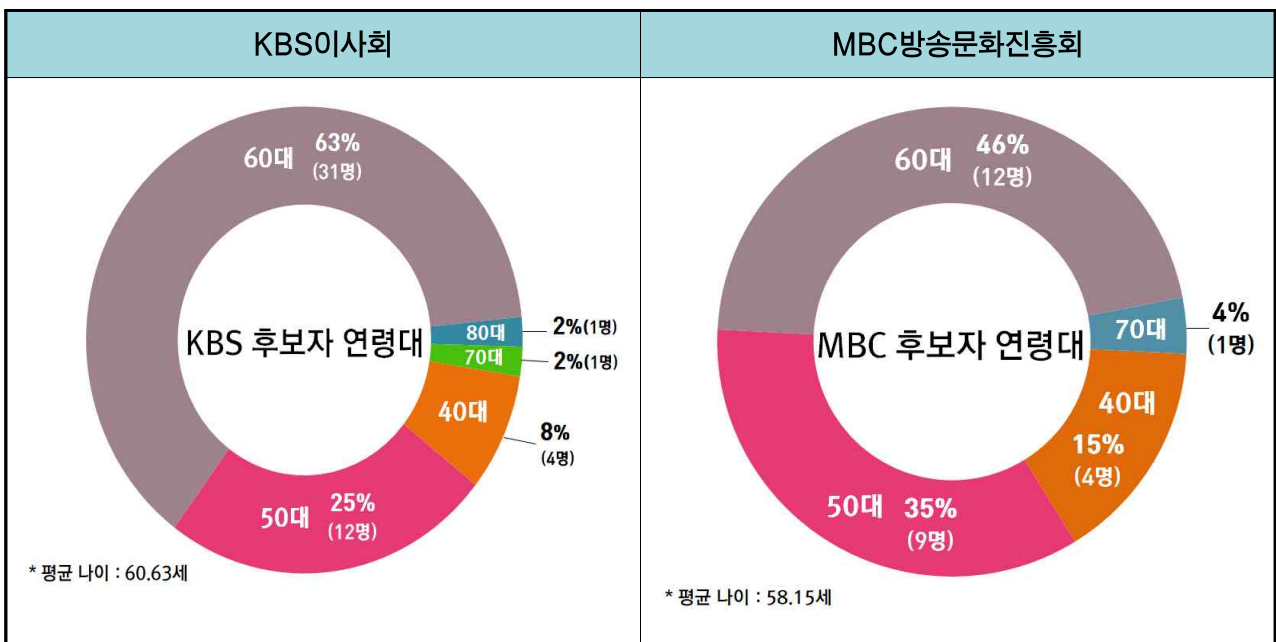
4. 검증 결과

1) 후보자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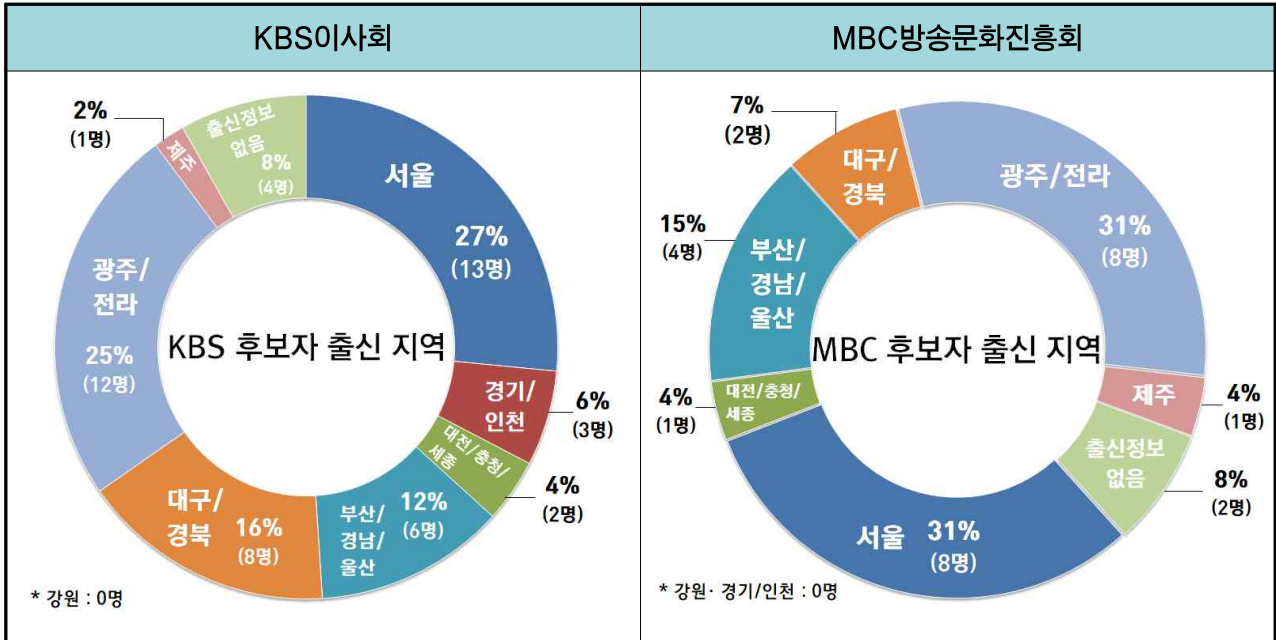
○ 후보자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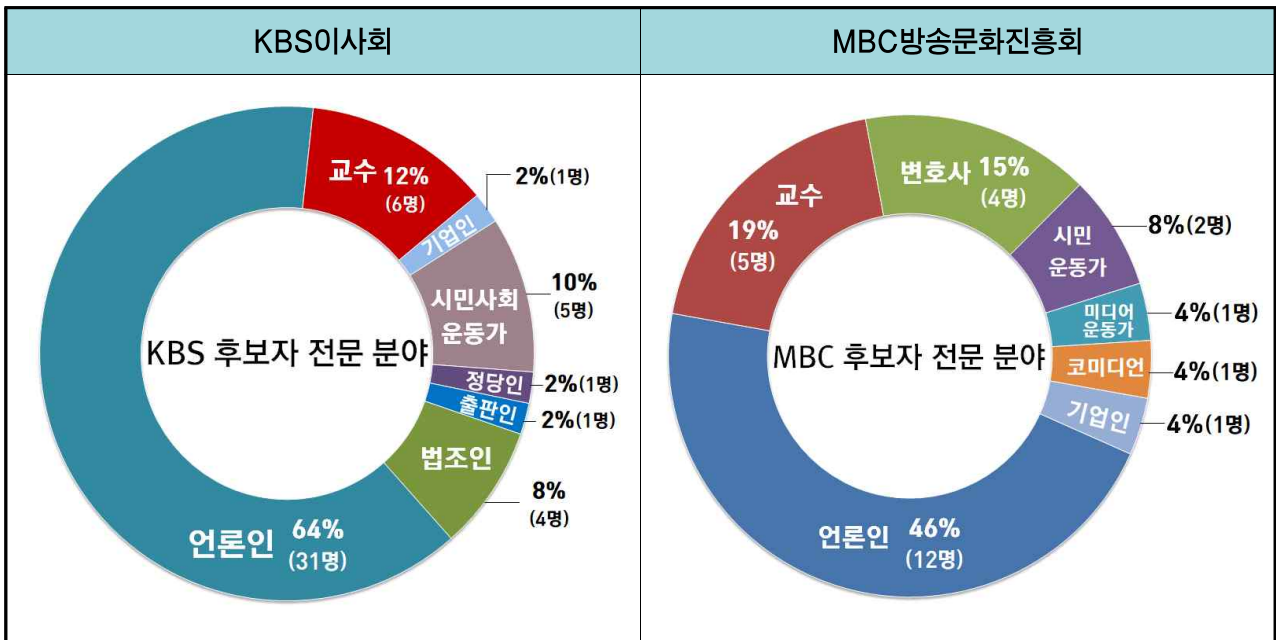
○ 후보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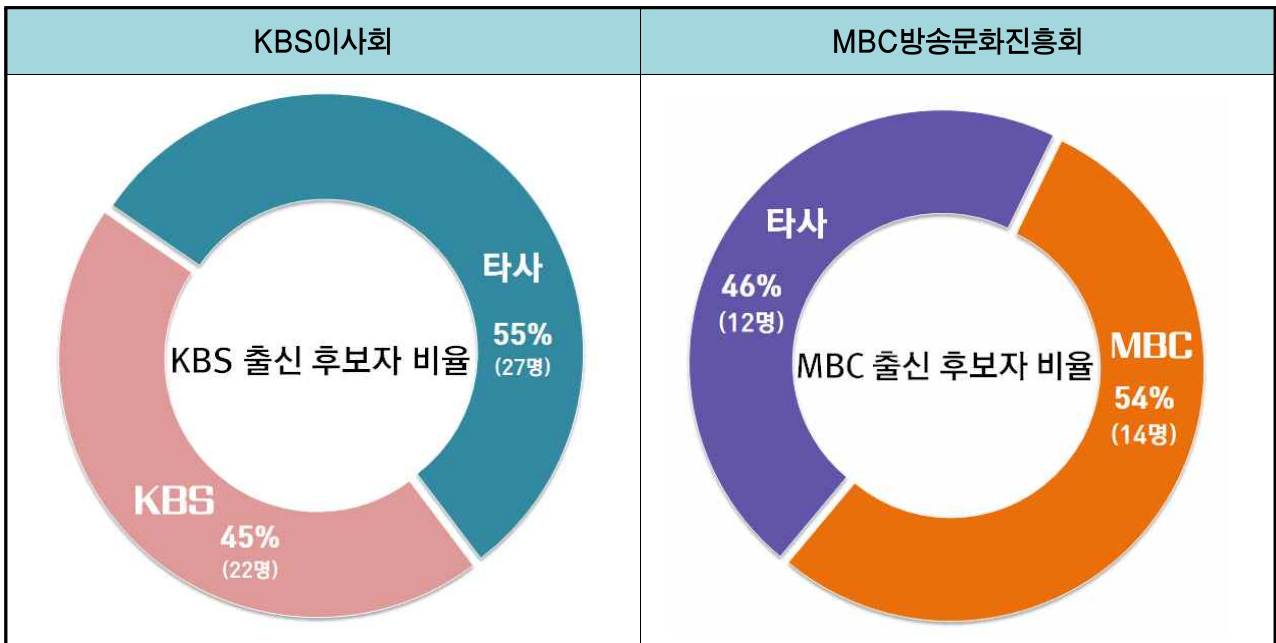
○ 후보자 출신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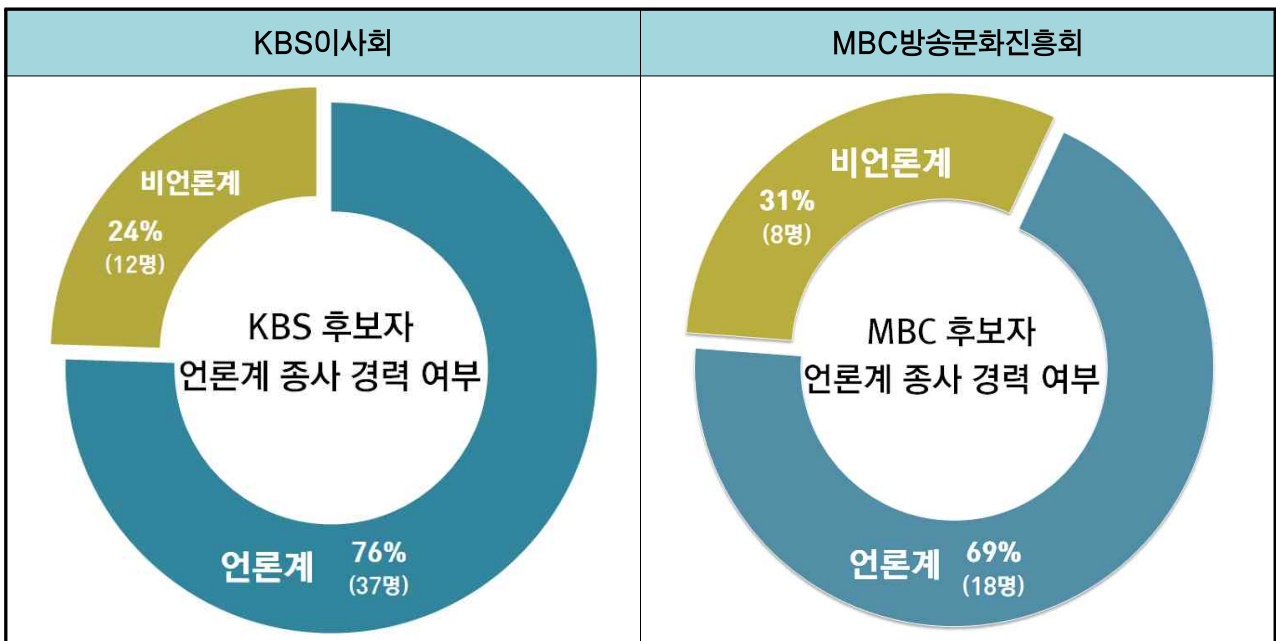
○ 후보자 전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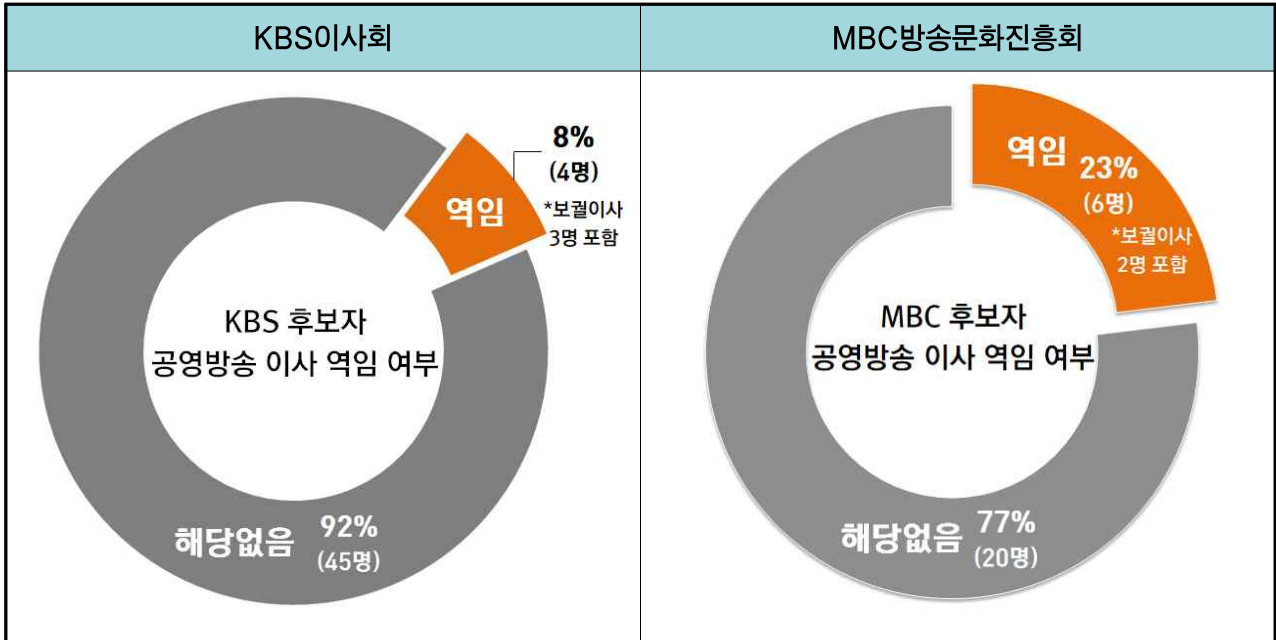
○ 해당 방송사 출신 후보자 비율



○ 후보자의 언론계 종사 경력 여부



○ 후보자의 공영방송 이사 책임 여부



2) 부적격 후보자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 검증, 시민 제보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후보자들 중 절대 이사로 선임되어서는 안 될 ‘부적격 후보자’ 명단을 선정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 의견 제출’ 절차에 따라 제출함. 제출 시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검증 내용, 관련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음
- 부적격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덕목, 도덕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확인된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 및 훼손하거나 민주주의, 다원적 가치를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사로 엄격하게 제한함. 이들은 시청자 국민, 방송 종사자 일반의 상식과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해도 탈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부적격 후보자들은 총 15명으로, KBS이사회 후보자들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 후보자들 중 8명이 포함됐음. 특히 검증 결과 과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공적 자산 사적 유용 등의 비위 행위와, 성평등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15명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함. 방송법,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해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도 다수에 해당하는 등 부적격후보자 대부분이 도덕성, 공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방통위가 선임, 추천하는 임명직이고 그동안 공개적인 검증,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권의 눈도장으로 이사 자리를 맡았던 관례 때문인지, 일반적인 공직 및 공공기관 임원 선임 시 용납되지 않는 자질의 후보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검증 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임
-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부적격 후보자 명단과 검증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언론 및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함. 만약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해당 후보자들이 외부의 압력, 개입이라 주장하며 선임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임. 방통위는 시민행동이 제출한 부적격 후보자 명단과 선정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이를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해야 함

5. 종합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 단체와 사유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불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임 기준과 원칙도 공표하지 않아 자칫 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자리 나눠 먹기식 선임을 되풀이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임(검증)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압력, 개입이 있는 인사는 확인 즉시 탈락 조치해야 함. 아울러 이사들이 연임할 경우 사적인 인맥을 형성하고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보궐이사들의 연임을 시도하는 후보자들도 원천 배제해야 함
- 선임 기준을 마련할 때는 학계, 언론·시민단체, 현업언론인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한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함.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제시한 10대 조건은 장기간 수많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임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의견 제출 기한을 5일로 짧게 제시해 검증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중적인 검증과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했음. 이들은 과거 방송장악과 독립성, 공정성 훼손에 앞장서거나 민주적, 다원적 가치를 배척하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들에 해당함
- 적폐 청산, 공영방송 정상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들을 절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됨. 만일 이들 중 누구라도 이사로 선임된다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 없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사회 구성 시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온 성평등, 지역대표성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현재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고작 7%에 불과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방통위는 여성 이사 비율을 1~2명 정도 늘리는 보여주기 식 조치를 넘어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해 여성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함
-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때도 후보자들이 제시한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후보자의 거주 지역과 기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을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해야 함. 끝.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 남았다

- 부적격 후보자 배제하고 제대로 선임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후보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기한도 5일로 제한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방통위를 통한 의견 제출에 참여했을지는 미지수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언한대로 5일간 집중적인 검증을 벌였다.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현업언론인들이 검증팀을 구성해 각 후보자들이 10대 원칙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토론한 후 심사했다. 검증 기간 운영한 온라인제보센터를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 내용도 적극 참고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를 통해 KBS 이사회 7명, 방문진 8명 등 총 15명의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 내용을 방통위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했다. 최소한 이들은 절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외유성 출장, 공적 자산 사적 유용 등의 비위 행위와, 성차별·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다. 성평등 구현, 비리 척결은 시대적 과제이다. 15명 중 절반 가까운 후보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송법, 편성규약을 어겨가며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도 결격 사유로 삼아야 한다. 이들이 이사가 될 경우 이사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 편성에 개입하는 검열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부적격 후보자 중 다수가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 이사 재직 시 공적 책무는 내팽개친 채 오로지 극단적인 이념 논쟁, 민주적·다원적 가치 배척에 골몰한 후보자들, 공영방송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준 후보자, 방송사 재직 시절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요구를 짓밟고 부당 징계 등 탄압에 열 올린 후보자 등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으리라 상상하기 어려운 자들이 부적격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 정서 일반도 동의하기 어려운 전력을 가진 자들이다.

만일 이 같은 부적격후보자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다면 그것은 방통위가 애초부터 제대로 된 선임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정치권의 개입에 휘둘려 밀실인사를 자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부적격자들의 면면은 상식을 초월한다.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 남았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전면 개편된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문이 바로 이번 이사 선임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무엇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인지 심사숙고해 제대로 선임하길 바란다. 부적격 후보자들을 원천 배제하고 과연 누가 공영방송 이사로써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성평등과 다원적 가치,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해 구성할 것인가만 고려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의견 제출로 끝내지 않고 선임이 완료될 때까지 검증을 이어갈 것이다. 시청자 국민과 함께 이번 선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